

공동체 소식



삼위일체 대축일

하느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신 성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어, 하느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인간에게 밝혀 주셨으니, 저희가 참신앙으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광을 알고, 오직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을 흠송하게 하소서.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 입니다.

- "삼위일체의 신비를 계시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그 신비 안으로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맞맞은 정성으로 응답하여야 하겠습니다."

- 가톨릭교회 교리서 234항: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비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핵심적인 신비이다. 이는 하느님 자신의 내적 신비이므로, 다른 모든 신앙의 신비의 원천이며, 다른 신비를 비추는 빛이다. 이는 "신앙 진리들의 서열"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교리이다. "구원의 역사[救世史]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참되고 유일한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고, 죄에서 돌아서는 인간들과 화해하시고 그들을 당신과 결합시키시려는 길과 방법의 역사이지 그 밖에 다른 것이 아니다."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입니다.

- 교회는 해마다 6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성심 대축일을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에 지내는 것은 예수 성심의 사랑이 성체성사와 깊이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라고 하였듯이, 예수 성심은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반 모임 안내

- 내용 : 날자와 장소는 반장님이 주관하여 정하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6월 맨하탄 공동체와 로렌스 공동체 미사는 없습니다.

전례 성가

Table with 4 columns: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Values: 81, 512, 178, 31

주일미사 복사

Table with 3 columns: 시종 복사, 향 복사. Rows for 금주 and 차주 with names like 김정원 안젤라, 고평원 프란치스코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3 columns: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Rows for 금주 and 차주 with names like 김대연 요셉, 이우석 프란치스코

애찬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금주, 차주. Values: 김명은, 한춘희, 장보혜; 정연숙, 박동희

헌금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금주, 차주. Values: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Table with 4 columns: 영성체, 헌금, 교무금. Values: 6/4, 50명, 183달러, 1,575달러. Includes names like 김진미, 김호원, 고영방, 이영민, 김태중, 김대성, 정연숙, 김대연 (총 8세대)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지혜로 다 알아듣기 힘든 신비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아드님과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 이시며 한 주님이시나, 한 위격이 아니라 한 본체로 삼위일체 하느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일치와 지극한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그림 묵상



사랑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한 3,16-17)

오늘 우리는 사랑이신 하느님의 축일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당신 아드님을 우리 죄값의 대속물로 지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너그러운 사랑으로 당신 아드님을 내어주십니다. 그 아드님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바치시고, 십자가의 결실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김옥순 수녀 | 성바로말수도회

제 1 독 서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34,4ㄱㄴ-6.8-9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
◎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어좌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커룹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13,11-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6-18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쉐 마

### 은총과 사랑, 친교가 늘 우리와 함께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아버지 하느님, 아들 하느님, 그리고 두 분에게서 발하시는 성령 하느님께서는 각각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한 분 하느님이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인간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지만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계시되고 있고, 교회 공동체 역시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는 점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있기에 교회는 하느님을 삼위일체이신 분으로 고백하고, 삼위일체가 바로 공동체의 원리임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이런 삼위일체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오늘 1독서의 탈출 34,4-9은 아버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지니신 주님께서는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는 분노하시어 그들을 벌하시지만,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시어 그들을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다시 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느님을 당신의 아버지,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토록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에 관해서는 에제 36,16-38에도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빌론 유배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내시어 깨끗이 씻겨주시며, 정결하게 해 주시어 다시금 당신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탈출 34,9이 말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뿔뿔하여 항상 하느님 계획을 틀어놓는 역할을 하는데, 하느님께서 그들의 죄악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에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너그러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느님은 당신 아들의 피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치르셨는데, 이를 통해 당신 아들을 믿는 이들은 누구나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복

음도 이 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외아들을 내어 주시는데, 이제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요한 3,16-18)

그런데 요한 14,15-17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께로 되돌아가고 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 곧 진리의 영을 보내 주시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당신께서 부활하신 뒤 예수님께서는 당신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아버지와 아드님이 보내어 주시는 진리의 영 덕분에 세상 안에서 고아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으며, 그분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하느님의 세 가지 위격인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2독서로 봉독한 사도 바오로도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빈다고 인사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 희생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졌음을 믿고 고백하며, 그 믿음이 코린토 공동체에서 제대로 드러나기를 기원하는 인사말입니다. 아울러 성령께서 오시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느님과 화해하며,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기원하는 인사말입니다.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아 다시 한 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느님이 삼위일체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본받아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움 청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 염철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교리산책

### 사도신경

우리가 매 주일 미사 때 사제의 강론에 이어 바치는 사도신경(使徒信經)의 라틴어 첫 문장입니다.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em caeli et terrae.' 우리 말로 옮기면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입니다. 주일 미사 때마다 외워서 바치는 사도신경을 흔히 '신앙고백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말마디가 Credo(크레도, 뜻은 '나는 믿나이다')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크레도는 비록 짧은 단어이지만 사도신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뒤에 이어지는 12가지 신조(信條)는 이 시작의 말인 '크레도'를 구체적으로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Credo)의 출발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신앙고백문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입니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 16,16) 둘째는 사울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사도 9,20) 셋째는 하느님의 세 가지 존재 양식에 대한 고백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태 28,19)

이렇게 사도들의 신앙고백이 원형이 되어 6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거쳐 오늘날의 사도신경이 탄생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성경의 요약이기에 성경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의 숨은 다이내믹, 그 힘이신경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신중하게 검증해야 했기에 교부들은 오랜 논쟁과 검증을 거쳐 7세기에 지금 사용하는 사도신경을 완성한 것입니다. 크레도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근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히브 11,6)

- 김지영 사무엘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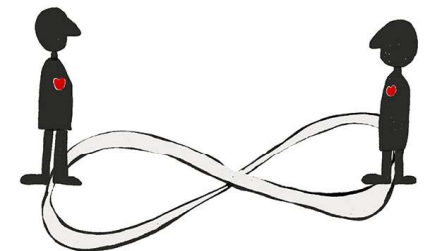
복음묵상

### 인간 구원의 목적

아버지가 아들까지 내어주며 구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사랑의 가장 큰 조건은 바로 대상이 영원히 존재함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사랑하시고자 인간이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아들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요한 3,16)

- 임의준 신부